

3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신선농산물 수입통관 관련 신규 농업부 장관령 시행

- 법령명 :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장관령 2015년 4호
- 제정일 : 2015. 02. 17 / 시행일 : 2016. 02. 17
- 제정목적 :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스크기반 검사방법을 바탕으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 법령 주요내용
 - 사과, 단감, 딸기 등 신선농산물 103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만 수입 가능
 - 한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6년 1월 22일부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로 등록되었으며, 수출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은 후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사전신고서 공식 웹사이트 : <https://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청 및 지방청 포함 총 10개 실험실에서 분석증명서 (COA) 발급

<현지 유통 중인 한국 신선농산물 및 분석증명서 샘플>

			
딸기	사과, 배	굴, 포도, 참외	분석증명서(COA) 샘플

2. 비스킷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의무화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60/M-IND/PER/7/2015”에 의거 "비스킷" 품목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강제 대상품목으로 설정
- 2016년 7월 27일부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스킷 SNI 인증 의무화 시행

구분	제 품	HS CODE
1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코코아를 포함하지 않은 것	1905.31.10.00
2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코코아를 포함한 것	1905.31.20.00
3	와퍼	1905.32.00.00
4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기타 달지 않은 것	1905.90.20.00
5	비스킷(비스킷, 크래커와 파이) 기타	1905.90.90.00

- 위 HS코드에 해당하는 “비스킷 및 기타베이커리 제품”의 ‘15년 수출액은 1,432천불로 전년대비 31.6% 증가하였으나 올해 SNI 의무화 시행으로 수출 확대 애로 전망

a. 인증 절차

- ①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SNI인증 신청 ->
- ② 인도네시아 제품인증기관 (LSPro) 심사 ->
- ③ 현장실사 및 샘플 테스트 ->
- ④ 인증서 발급

b. 소요 기간 : 2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

- c. 소요 비용 : 인증비용(평균 약 3,000불)은 제품마다 상이하며, 인증 비용 이외에 실사자 항공비, 체제비, 숙박비 등을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전체 약 1천만원 소요)

3. 인도네시아, 1분기 쌀과 쇠고기 수입량 증가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3월 기준, 쌀과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밝힘
- 2016년 1분기 기준, 총 쌀 수입액은 약 393백만 달러(2월 약 121백만 달러, 3월 약 116백만 달러)로, 전년 동분기 약 29백만 달러 대비 증가하였음
- 해당 기간 동안의 5대 쌀 수입국은 다음과 같음

(단위:USD)

순위	수입국가명	수입액
1	베트남	198,410,000
2	태국	189,850,000
3	파키스탄	3,090,000
4	인도	1,040,000
5	중국	488,980
6	기타	267,640

- 2016년 1분기 기준, 총 쇠고기 수입액은 약 79백만 달러(2월 약 30백만 달러, 3월 약 3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백만 달러 증가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의 5대 쇠고기 수입국은 다음과 같음

(단위:USD)

순위	수입국가명	수입액
1	호주	61,160,000
2	뉴질랜드	10,320,000
3	미국	7,460,000
4	싱가포르	169,390
5	말레이시아	69,620
6	기타	56,670

*출처: 2016년 4월 20일, Liputan 6 (www.liputan6.com)

4. 소금수입금지, 인도네시아 식품산업 존폐 위기 봉착

- 인도네시아 소금사용자산업협회(AIPGI)는 소금원료 부족으로 인해 내수시장의 식품산업이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힘.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가능한 빨리 소금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매년 2.1백만 톤의 소금을 수입해 왔으며, 이는 모두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소비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향후 소금 수입정책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소금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125호에서는 API-P(제조수입업자번호)를 보유한 사업자의 소금수입에 대해서만 다를 뿐, 소금 공급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음
- 식품산업은 매년 평균 60억 달러, 펄프산업은 매년 평균 40억 달러, 섬유산업은 매년 평균 130억 달러 상당의 소금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금원료 부족으로 인해 관련 산업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염전개발을 위해서 최소 1,000헥타르, 연평균 강우량 최대 1,300mm, 최소 4개월의 건기라는 자연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염전 후보지가 필요함
- 비록 인도네시아가 많은 해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염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6,000헥타르(서부자바 3,860헥타르, 중부자바 5,658헥타르, 동부자바 12,197헥타르, 서부누사틍가라 1,861헥타르, 동부누사틍가라 241헥타르, 남부술라웨시 1,247헥타르, 기타 900헥타르)에 불과함
-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 소금은 보통 2~3등급의 품질로, 1등급 품질의 소금은 PT. Garam에서 매년 350,000톤(5,490헥타르)이 생산됨

*출처: 2016년 4월 19일, TEMPO (www.tempo.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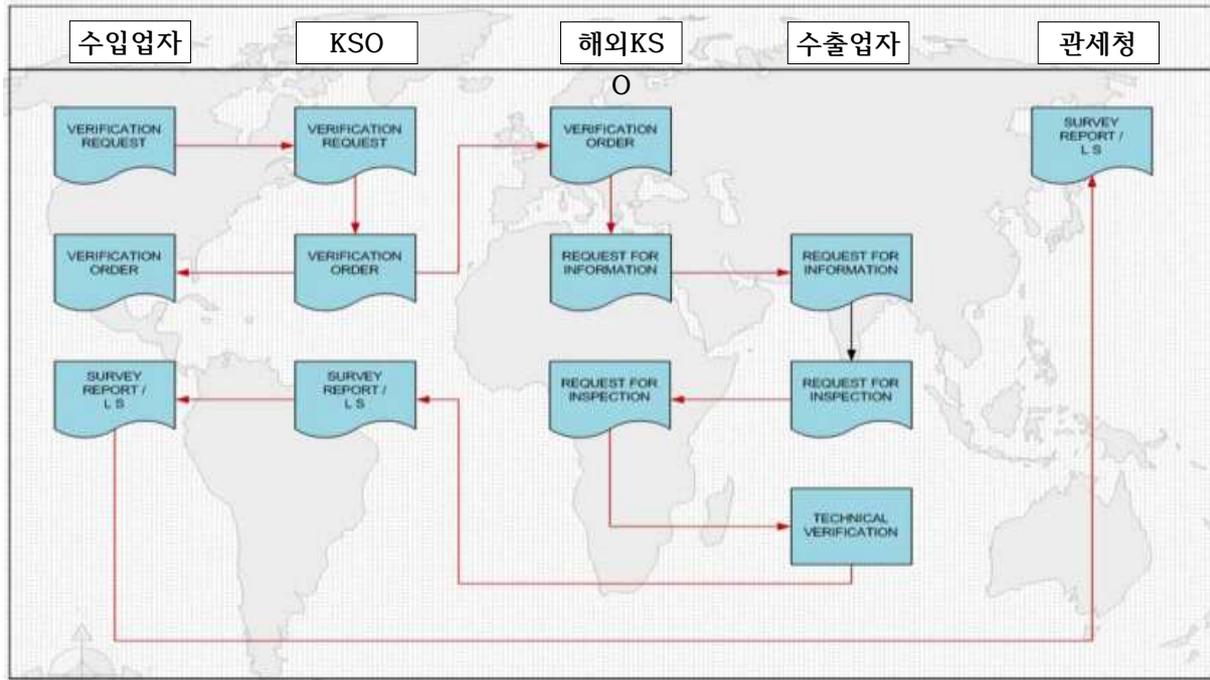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선적 전 검사제도

- 선적 전 검사제도는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Surveyor가 선적항에서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제도임
- 검사기관이 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 등을 기록한 Surveyor Report (LS)를 발행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시 해당 LS를 제출해야 함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철강제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2009년 이전에 중고 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 인쇄기 및 복사기 등 제품에 대해 이미 도입되어 있었음)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PT. SUCOFINDO에서 운영 중으로, PT. SUCOFINDO는 행정 인증과 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행정 인증은 문서 및 허가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검사이고, 기술 인증은 선적항 국가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검사임. 이 외에도 산업전반 분야에서 교육, 연수, 컨설팅, 연구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선적 전 검사 신청절차는 하기와 같음
 - ① 수입업자는 www.app-vpti.com 웹사이트를 통해 인증요청서(*Verification Request*)를 작성하여 제출함
 - ②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전에 제출할 경우, 해당 인증요청서를 기초로 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인증주문서(*Verification Order*)가 신청당일에 발급됨.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후에 제출할 경우, 인증주문서는 오후 또는 익일에 발급됨
 - ③ 인증주문서는 검사비용 입금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KSO 사무소로 보내짐. 해외의 KSO 사무소는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수출업자/제품판매자에게 보냄. 검사날짜가 확정되면 해외 KSO 사무소는 조사관을 수출업자가 알려준 장소로 보냄
 - ④ 해당 국가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외 KSO 사무소는 Surveyor Report (LS) 발급을 위한 인증결과보고서를 발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최종 서류(수출업자의 Final/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Details, Lab Test, Certificate of Origin 등)를 받음. 최종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Surveyor Report(LS)는 발급되지 않음

- ⑤ Surveyor Report (LS)는 최종 서류가 승인된 이후에 발급됨
- ⑥ Surveyor Report (LS) 발급 후, Surveyor Report (LS)는 우편을 통해 수입업자 주소로 보내지거나 자카르타 KSO 사무소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찾아감



III 통관문제사례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6.2.17		0709.59.5000	팬이버섯 (코리아팜)	6.8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증명서(COA)가 아닌 사설 실험실에서 발급받은 분석증명서를 제출하여 통관이 보류됨	해당 물품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 요구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한 후 통관 문제 해결함

- * 통관문제사례 Excel표 별첨
- * 출처 : 수출업체

□ 신선농산물(FFPO) 수출입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농업부장관령 2015년 4호 법령 미숙지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 발생

- 법령 주요 내용 : 사과, 단감, 딸기 등 신선농산물 103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된 국가,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만 수입 가능
- 해당 법령 시행일 2016년 2월 17일 이후에 A업체의 팡이버섯이 인도네시아 항구에 도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증명서(COA)가 아닌 사설 실험실에서 발급받은 분석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통관을 보류
-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신규 법령을 미숙지하였으나 물품선적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설명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검역청에서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요구
- 그 결과 팡이버섯이 문제없이 통관되었음